

완도군,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 나선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업무 협약 4년 동안 소비 트렌드에 맞는 완도 대표 수산가공식품 개발

완도군은 지난 1월 31일 완도군청에서 완도군-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완도 대표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와 함께 가성비·편의성·시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가정 간편식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완도 대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완도군은 사업비와 사업 지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행 기관인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사업 운영 및 관리, 수해 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멘토링 및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간 총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완도 관내 기업 8개소를 선발하여 개발 제품 표준화, 메뉴 개발(R&D) 및 시제품 제작, 자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물 원물 중심의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 고차 가공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완도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 협약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인 2월 1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대회의실에서 완도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지난 1월 31일 완도군청에서 완도군-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완도 대표 수산가공 히트상품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인·맞벌이 가구 증가와 함께 가성비·편의성·시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가정 간편식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완도 대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완도군은 사업비와 사업 지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행 기관인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사업 운영 및 관리, 수해 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멘토링 및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4년간 총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완도 관내 기업 8개소를 선발하여 개발 제품 표준화, 메뉴 개발(R&D) 및 시제품 제작, 자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물 원물 중심의 단순 가공에서 벗어나 고차 가공식품 개발 지원을 통한 완도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 협약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인 2월 1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대회의실에서 완도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참가 희망 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설치비 60%, 최대 300만원 지원

해남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으로, 설치비의 60%(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년 반복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지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피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홈페이지(<https://www.haenam.go.kr>)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50농가에 7,000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지역현안 효율적 해결' 소통 토론회 개최

장흥읍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방안 논의...전선 지중화, 안전한 인도 개설 등

장흥군이 지역 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군수와 직원 간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소통 토론회는 김성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보고회 개선책의 일환으로, 군수가 주제

하고 현안 부서의 직원과 팀장, 부서장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다.

1월 30일 열린 토론회는 '장흥읍 시가지 교통환경 개선'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재난안전과, 건설도시과, 농촌활력사업소,

장흥읍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한국전력공사와 협조하여 중앙로와 장흥로의 전선·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중앙로와 장흥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인도를 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로·장흥로·건산로 주정차 가능시간 조정, 타워형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론회를 주재한 김성 군수는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던 장흥읍 시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개선안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군정 성과향상 TF팀 구성...회의 개최

진도군이 군정 성과향상 TF팀을 구성했다. 군정 성과향상 TF팀은 고향사랑기부제, 인구늘리기, 기후변화대응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3개 분야를 구성, 첫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인구정책실 등 18개 부서의 실·과장 등이 참여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추었다.

TF팀의 첫 회의는 분야별로 ▲고향사랑기부제 ▲인구늘리기 ▲기후변화대응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군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 상황 보고 등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군 군정 성과향상 TF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들고 군정 성과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100세 시대' 맞아 평생교육 사업 확대 추진

장흥군이 100세 시대를 맞아 지역민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평생교육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평생교육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도 운영한다.

첫 단계로 '2023 장흥군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에도 노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중·고교생에게는 학교수업 이외에 수반되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후 학습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쌀 판매 확대를 위한 협의회 개최

지난해 쌀 택배 직거래 1860톤·48억 원 매출 올려



강진군은 지난달 31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 회원들과 2023년 강진쌀 판매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쌀 소비감소와 쌀값 하

락에 대응하여 기존 고객을 유지 확보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역 17개 쌀 판매 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고품질의 강진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강진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60톤의 쌀을 직거래로 판매해 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우수고객 90여 명을 선정해 청자반상기세를 증명하는 고객사로 행사를 실시 했다.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프리미엄 호평'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17년 연속 선정돼 강진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에서도 지난해 설·추석 명절과 햅쌀 수확시기에 맞춰 강진쌀 구입 고객 9만 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강진쌀 판매 우수 공무원 70명을 시상해 판촉 활동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향인준 농정과장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강진쌀 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매년 판매금액의 1%를 자체 적립해 대외 홍보와 쌀판매 전담직원 배치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트카드!

세계의 중심오!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